

풀과 성경

한 경 호(목사, 본지 편집위원장)

올 농사에서 풀 관리에 실패하였다. 지난 해 풀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던 터라 올해에는 단단히 다짐을 하였었다. 귀농운동본부에서 만든 손제초기도 구입하였다. 이른 봄 드디어 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요놈들 올해는 안될 걸” 속으로 생각하면서 제초기로 밀었다. 아직 어린 시기인지라 쉽게 끝났다. 여러 날이 지나자 또 올라왔다. 그런데 제초기 사용으로 쉽게 제거한 경험이 도리어 화를 불렀다. 조금 더 있다가 해도 충분하겠지, 하고 느슨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비가 내렸다. 다른 일이 있어서 몇 일 돌보지 못했기에 걱정스런 마음으로 밭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풀은 이미 제초기로 없애기에는 너무 자라 있었다. 낭패였다. 어떻게 하나? 별 수 없이 올해도 낮으로 베었다. 베어놓은 풀이 썩어서 거름이 되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말이다. 두 번 베느라고 땀을 많이 흘렸다.

농사철에는 내내 ‘풀의 압력’속에 지낸다. 화학농약인 제초제를 안 쓰기 때문이다. 풀이 이렇듯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되다 보니 자연히 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던 중 성경을 보다가 눈에 탁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다. 창세기 1장 11-12절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맺

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중략)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 창조 3일째에 있었던 일이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땅에 나도록 한 것이 바로 풀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풀을 먼저 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터였다.

첫째는 풀이 모든 식물들 중 가장 우선적인 존재라는 점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중장비로 땅을 온통 뒤집어봐도 제일 먼저 나는 것은 풀이요 산불로 폐허가 된 산에서도 제일 먼저 나는 것은 풀이다. 풀이 나고 그 이후에 다년생 풀, 관목, 교목들이 이어서 자라며 마침내 숲을 이룬다. 둘째, 풀의 편재성(遍在性)이다. 풀은 이 세상 어디든 안 나는 곳이 없다. 풀이 안 나는 곳은 사막이거나 죽은 땅이다. 풀이 날 때 그 땅은 살아있는 땅이다. 셋째로 풀의 편재성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생태계 내에서의 풀의 민중성이다. 어디든 나는 풀이요, 제일 먼저 나는 존재이다 보니까 보이는 식물세계의 제일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천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grassroots와 민중은 서로 통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풀의 생존 방식이다. 풀은 먼저, 부드럽고 약하다. 베면 베이고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고 뽑으면 뽑힌다. 하자는 대로 다 순응한다. 이것이 풀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풀은 언제나 생태계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 풀은 정말 유강(柔強)한 존재이다. 순종과 순응으로 자기 존재를 강화시켜 나가는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또한 풀은 약한 것 같지만 생존력이 농작물과는 상대가 안될 정도로 강하다. 썩 뿌리를 캐보라! 눈에 보이는 모습과 달리 땅속으로 얼마나 많은 뿌리들이 뻗어있는지 말이다. 질경이는 잘 뽑히지도 않는다. 보이는 잎은 연약하고 부드럽지만 보이지 않는 밑부분의 뿌리는 ‘생존력’ 그 자체이다.

풀은 또 자기존속 능력 즉 번식력이 뛰어나다. 엄청난 씨를 퍼뜨리고 끊임없이 싹을 틔운다. 이웃집 부추밭 고랑에 나는 바랭이는 정말 끈질긴 놈이다. 제초를 호미로 하는 그 집은 한 해에 대여섯 번 김을 매주는데 그렇게 계속 김을 매줘도 씨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정말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우리는 풀을 제거해야할 대상 아니면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풀은 원수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생각을 좀 바꾸면 풀은 생태계를 떠받쳐주는 기초요 내 존재의 토대임을 알 수 있다. 생태공동체의 관점에서 풀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풀의 존재론적 속성인 편재성과 민중성을, 역사속에서 천대받으면서 실제로는 역사를 떠받쳐온 농민들의 삶과 일치시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풀과 생태계와 농민을 그리고 나를 하나의 관점에서 일치시키는 역사-생태적인 입장은, 오늘의 문명을 바로잡아 나가는 시발이기도 하다.

풀은 천지창조 3일째에 세상에 나왔다. 제3일은 역사의 변혁이 일어나는 날이요 부활의 날이기도 하다. 풀이 제 대접을 받고 인정받는 날이 바로 문명 전환의 날이 되리라.